

# 家庭管理의 認知的 領域 啓發을 위한 基礎 研究

洪亨沃

## I

管理(Management)라는 것은 價値와 滿足의 實現을 指向하는 計劃的인 活動이다.<sup>1)</sup> 그것은 生活의 諸局面—經濟的, 社會的, 心理的, 肉體的, 精神的, 技術的一에 關련된 知識과 科學의 發見을 이용한 目標의 達成過程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個人, 혹은 家族의 管理는 生活狀況에서 끊임없이 提起되는 要求充足, 問題解決, 葛藤解消를 위해 획득된 知識을 이용하여 資源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過程이다. 이 때 사용되는 管理上의 知識이라는 것은 항상 改善을 목표로 추구되어져야 하며, 個個의 狀況에 맞추어 修正될 수 있는 個別的 變量을 가진다. 이러한 知識의 이용은 個人, 家族의 經驗과 觀察의 폭에 영향을 받아 가면서 意圖的인 管理的 行動樣相으로 사태를 誘導한다.

個人은 自身의 생활의 變화에 順應해 가는 速度보다 더 빨리 技術環境의 새로운 產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不均衡的인 變化의 相衝過程에서 葛藤이 일어난다.<sup>2)</sup> 이처럼 社會的 文化的 變化가 技術的인 發達 뒤에 遷滯될 때는 個人的 生活을 變化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効果는 生活의 諸局面이 外的인 要因에 의해 調整·統制되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발생은 각 個人, 혹은 家族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는,<sup>3)</sup> 즉 생활은 管理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管理 자체의 필요성을 示唆할 뿐만 아니라, 管理는 學習될 수 있는 것이며, 家族과 家庭에 關련된 많은 分野에서 적용될 수 있고, 行動科學에 근거를 둔 하나의 중요한 훈련으로서 認識됨을 意味한다.<sup>4)</sup> Rhoda Kotzin은 家庭管理의 訓練은 實際的인 것으로 파악되어져야 하고, 目標達成이라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서

- 1) P. Nickell, A. S. Rice and S. P. Tucker,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76), p. 31.
- 2) 張明郁, “우리 나라 主婦의 家庭管理 行動의 實態調查와 그의 効率의in 管理方法에 대한 研究,”論文集, 제1권 (서울 : 서울大學校 家政大學, 1976), p. 23.
- 3) P. Nickell, A. S. Rice and S. P. Tucker, *op. cit.*, p. 34.
- 4) I. H. Gross, E. W. Crandall and M. 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3rd ed.,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1973), p. 7.

‘實際로 行한다’는 데 그 價値를 두어야 한다<sup>5)</sup>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管理는 行動指向的인 것이기 때문에 理解만 가지고는 不充分하고, 管理를 위한 能力を 啓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Bratton은 管理의 熟達을 目標를 定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고, 目標를 명백히 한다는 것은 學習될 수 있는 것이고 管理의 决定的 技術이라고 하였다.<sup>6)</sup> 또한 Summer는 管理에 있어서 能力의 啓發이나 熟達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熟達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첫번째 段階는 管理의 構成要素와 相互關係의 分析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음<sup>7)</sup>을 지적하였다. 이로써, 管理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標準概念이 뚜렷해 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家庭管理의 課業에 一生동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家庭管理 課業에 대한 興味나 嗜好에 관한 分析이 필요하거, 家庭管理에 있어서 일 자체의 知的 要求 程度의 提示 및 구체적 사항에서 그 能力 啓發을 도와 주고자 하는 노력은 아주 중요하다.

각각의 家庭管理 課業에 대한 好·不好 與否 (affective dimension)는 一般的으로 本質의 興味를 유발시키는 情意的 領域 (affective domain)이나 思考, 注意力, 計劃, 技術의 사용에 의한 認知的 領域 (cognitive domain)으로부터 유발될 수가 있다.<sup>8)</sup> Steidl의 研究에 의하면, 主婦들은 知的 要求가 낮은 일이건 높은 일이건 간에 어떤 일을 좋아 한다는 것은 대부분 情意的 領域에 속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知的 要求가 높은 일의 경우에는 일의 過程에, 知的 要求가 낮은 일의 경우에는 時間 調節에 포함되는 특정한 認知的 次元에 의해서 어떤 일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였고, 一般的인 認知的 領域에 의한 것은 제일 比率이 낮았다.<sup>9)</sup> 그러므로, 家庭管理 課業에 대한 好·不好 與否는 認知的인 것에 의하기보다는 대부분 本質의 興味一情意的 領域一로부터 决定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 자체의 知的 要求度의 觀點에서 보았을 때 認知的 領域은 高水準과 低水準으로 나눌 수 있는 테, Taba의 思考水準에 의하면 低水準은 概念形成이며, 高水準은 資料를 解析하고 推論하는 단계와 原理, 事實을 適用하는 단계이다.<sup>10)</sup> Stedl의 研究에 의하면, 家庭主婦들이 좋아하는 일은 注意力, 判断, 計劃 등의 知的 要求가 낮은 일 보다는 知的 要求가 높은 일이 比率로

5) R. H. Kotzin, "Remarks on the Appropriateness and Adequacy of a Conceptual Framework to a Discipline, With Special Reference to Home Management," in *Conceptual Frameworks: Process of Home Management*. Proceedings of a Home Management Conference, Michigan State University (Washington, D.C. : A. H. E. A. 1964), pp. 9-16.

6) E. C. Bratton, "Management Process in Conceptual Framework—Strength or Weakness?", in *Conceptual Frameworks: Process of Home Management*. Proceedings of a Home Management Conference, op. cit., pp. 37-41.

7) C. E. Summer, Jr., *Factors in Effective Administr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p. 19.

8) R. E. Steidl, "Affective Dimensions of High and Low Cognitive Homemaking Task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4, No. 2 (Washington, D.C. : A. H. E. A., 1975. 12.), p. 123.

9) Ibid., p. 125.

10) 李榮德, 「教育의 過程」(서울 : 培英社, 1973), pp. 178-181.

보나 順位로 보나 우세하였다<sup>11)</sup>고 한다. 主婦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知的 要求가 높은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遂行 過程의 解釋이나 個人的 意味를 강조하여 일의 內容이나 構成에 多樣性 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2)</sup> 以上은 실제로 주부들이 높은 수준의 知的인 作用이要求되는 좀 더 創意的인 일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家庭管理는 家族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채용되는 것이라 할 때 家庭管理 遂行의 質的인 向上을 위해서는 管理의 技能的 侧面(知的 要求가 낮음)에 관한 것보다 家族資源의 利用, 意思決定, 意思遂行 過程을 主導하는 좀 더 高次元의인 認知的 領域(知的 要求가 높음)의 把握 및 啓發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리한 認知的 領域은, 한번 熟達이 되면 思考와 態度 속에 계속적으로 作用하는 一種의 價值와 같은 것으로서 家庭管理方向을 决定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本研究의 一次的目的은 家庭管理의 質的 向上과 管理의 熟達을 추구하는 過程에 도움이 되기 위해, 家庭管理의 狀況一家族資源의 利用, 意思決定, 管理過程一에 계속적으로 作用하는 認知的 領域의 重要性을 確認하는 데 있다. 또한, 그 概念構造로부터 출발하여, 임의로 標集된 두 比較集團을 대상으로 管理能力의 自己評價方法을 適用해 來으로써, 管理의 認知的 領域의 受容實態를 파악하고, 두 집단의 管理遂行能力의 未來水準 向上에 구체적으로 어떤 配慮가 필요한가를 提案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基礎研究 過程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家庭管理의 認知的 領域 啓發을 위한 앞으로의 研究問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단, 本研究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認知的 領域의 概念은, Steidl에 의한<sup>13)</sup> 課業의 好·不好를 유발하는 原因으로서의 情意的, 認知的 次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要求하고 遂行者가 满喚할 수 있는 認知能力에 관한 것이다. 家庭管理의 課業은 그 水準이 높진 낮진 간에 모두 認知的 能力を 要하고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認)知的 要求度가 낮은 것은 技能的인 것으로, (認)知的 要求度가 높은 것은 (認)知的인 일, 혹은 (認)知的 領域이라는 말로 便宜의 概念化를 시도하였다.

## II

家庭管理란 生活狀況에서 資源을 提起되는 要求充足, 問題解決, 葛藤解消를 위해 획득된 知識을 이용하여 資源을 선택하고 適用하는 過程이라 할 때, 그 目標達成을 위해 認知的 領域이 作用하는 管理의 中요한 對象 및 機能은 家族資源, 意思決定, 管理過程이다. 이 때, 意思決定은 管理過程에서 계속적으로 일어 나는 知的 活動이며, 資源의 實體는 管理對象으로서 管理

11) R. E. Steidl, op. cit., p. 136.

12) Ibid., p. 124.

13) Ibid., p. 123.

#### 4. 논문집

過程의 下部構造에 속하나, 資源의 計劃, 發見, 擴張 等 資源의 利用에 관한 것은 知的 領域에 속하는 것이다.

以上의 相互關係를 전제로 하고, 家族資源, 意思決定, 管理過程의 概念의 展開過程에서 認知的領域의 重要性을 確認해 보고자 한다.

Nickell과 Dorsey는 家族資源 (family resources)을 分析하면서, 資源은 각 個人과 家族에게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무수한 方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제까지는 주로 作業을 하는 데 중요한 資源의 種類, 有用한 資源의 사용 방법 等에 관해서 思慮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資源을 人的 資源 (human resources)과 非 人的 資源 (nonhuman resources)으로 분류하였고, 人的 資源은 家族의 潛在力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資源이며 啓發될 수 있는 것임에도 자주 지나치게 됨을 注意하도록 하였다. 또한 資源은 각 個人과 家族에 따라 각기 다른 量과 調合으로 사용되어 지므로, 家庭管理者는 潛在되어 있는 資源의 發見과 한정된 資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sup>14)</sup>고 하였다.

Gross 等은 資源과 그의 拘束力を 同時性을 가진 것으로 제시하고, 家族資源은 家族內에서 뿐 아니라 그 주변의 다양한 環境內에서 발견될 수 있고, 資源의 變化는 다른 体系의 資源뿐 아니라 体系內의 다른 構成要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up>15)</sup> 그들은 資源을 人的, 非人的인 것으로, 經濟的·非經濟的인 것으로 分類하고, 그 원천에 따라 두 개의 小 体系 (subsystem)로서의 家族 体系 (family system)와 擴大되어가는 주변 환경에 속한 資源의 所在를 명시하는 等 資源을 体系로서 파악하였으며, 資源의 發見, 利用, 相互關係의 복잡성 및 그로부터 發生되는 家庭管理의 質에 대한 파급효과에 이르기 까지 상세히 分析하였다.<sup>16)</sup> 이러한 것은 資源의 分析에 좀 더 擴張된 概念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家庭 内外部에 存在하는 資源의 發見과 意識的인 사용의 動機化, 資源의 利用에 관계되는 熟達해야 할 能力의 認知, 拘束力이 될 수도 있는 資源의 兩面性 認識 等 資源을 사용함에 있어서 高度의 認知的 能力を 필요로 함을 示唆해 주고 있다.

Nickell 等<sup>17)</sup>은 管理對象인 資源을 人的, 經濟的, 環境的인 것으로 分類하였다. 人的 資源은 人間內의 道具的 特徵, 혹은 質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人的 資源 開發의 實在와 潛在사이의 격차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人間의 潛在力 발굴에 動機를 가지고 박차를 가해야 生活이 質的으로 向上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人的 資源을 다시 認知的, 情意的, 精神一運動的, 時間的인 것으로 세분하였고, 人的 資源은 目標達成의 手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평범한 목표

14) P. Nickell, J. M. Dorsey, *Management in Family Living*, 4 th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68), pp. 82-85.

15) I. H. Gross, E. W. Crandall and M. M. Knoll, op.cit., p. 150.

16) Ibid., pp. 151-180.

17) P. Nickell, A. S. Rice and S. P. Tucker, op. cit., pp. 34-37.

를 좀 더 現實性 있고 實現 可能하고 相互關係의 質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作用될 수 있다고 하였다. 經濟的 資源은 金錢的 收入, 信用去來와 같은 신축성 있는 收入, 富, 附加給付 등으로 세분하고, 그 自體를 하나의 目標로서 추구할 수도 있는, 人間의 궁극적 價值 추구를 위한 道具的 價值로서 파악하였다. 環境資源에 대해서는 生命의 質的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自然的 實體的인 측면의 物理的 環境資源과, 家族의 本質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的 文化的 復合体라는 定義로부터 얻어지는 社會的 環境資源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資源을 構造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認知的 能力を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資源의 計劃에 혼동과 중복을 피하고 資源間의 關係를 명료히 하여 具體的 組織的으로 資源을 管理하는데 도움을 준다.

以上에서 살펴 본 家族資源에 대한 思考에 의하면, 管理者는 家庭 内外部의 体係 속에서 資源의 所在를 構造的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의 限界性 및 拘束力を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한, 價值 있는 資源이 낭비되거나 部分的으로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sup>18)</sup> 資源의 擴張과 發見에 關心과 動機를 가지고서<sup>19)</sup> 管理를 高度의 質的인 水準으로 遂行해야 한다. 그러므로, 資源管理는 管理者에게 高度의 知的 能力を 요구하고 있고, 資源管理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管理教育이 技能的 次元보다는 認知的 領域의 啓發과 強化로 進展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家庭管理에 있어서 意思決定은 啓發으로부터 目標의 設定, 計劃, 組織, 遂行, 評價하는 等의 管理의 全 過程에 걸쳐 무수히 일어나는 중요한 機能이다. 家庭管理에 있어서 意思決定은 單一한 決定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相互關係된 決定을 요구한다. 이는 時制的으로 未來에까지 연결된 것이며, 하나의 意思決定은 다른 것과 사슬(chain), 나무(tree), 衛星(satellite), 階級体系(hierarchy) 等의 연결 형태로 상호관련을 맺고 있다.<sup>20)</sup> 意思決定은 啓發를 發見하여 定義하는 段階, 情報蒐集 및 可能한 行動過程의 設定, 각각의 行動過程에 대한 有効性의 推定, 最善의 行動過程 選擇過程<sup>21)</s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過程의 進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價值觀의 定立, 情報蒐集의 必要性, 意思疏通, 決定의 合理性 等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過程에서 認知的 領域의 중요성을 確認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 相互關係의 分析이 필요하다.

意思決定은 家族과 個人的 價值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igsti는, 價值觀(value orientation)은 意思決定과 決定의 遂行을 引導하는 어떤 標準에 분명히 관계되는 信念体系이며, 信念은 真一假, 正一不正 等의 범주를 의미하는 반면에, 價值(value)는 어떤 특정한 方向으로 行動하게

18) I. H. Gross, E. W. Crandall and M. M. Knoll, op. cit., pp. 152-153.

19) J. D. Schlater, "The Management Proc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59 (Washington, D. C. : A. H. E. A., 1967), p. 98.

20) I. H. Gross, E. W. Crandall and M. M. Knoll, op. cit., pp. 224-230.

21) 張明郁, 「家庭管理學」(서울: 教文社, 1976), pp. 73-76.

하는 情意的 質質을 갖는 점이 다르다<sup>22)</sup>고 하였다. 그의 研究에 의하면, 價值觀과 意思決定樣式과의 관계에 있어서 行動暗示型은 宿命論的 價值觀 (fate orientation)을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統制論的 價值觀 (control—orientation)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價值觀과 意思遂行樣式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宿命論的 價值觀—課業中心方式, 統制論的 價值觀—人間中心方式과 有意味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研究結果는, 家庭管理에 있어서 價值觀은 意思決定 및 遂行方式에 한 情意的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意思決定에 있어서 價值觀 形成以後는 그 遂行方向이 自動的으로決定되는, 一種의 熟達現象—Eigsti에 의하면 情意的 質質—이 일어나게 되므로 價值觀의 定立은 意思決定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價值觀의 定立과 遂行 過程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判斷, 思考 等의 認知的 領域인 것이다.

家族의 意思決定은 個人的 價值를 포용하면서 社會의 영향권 内에 있기 때문에 多角의 相互作用을 초래하는 무수한 變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意思決定者는 항상 불완전하고 단편적이고 그릇된 情報 가운데 問題를 發見하고決定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하기 쉽기 때문에, 適時에 自信 있게 意思決定을 하기 위해서는 情報蒐集을 통해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分析하여 하나의 方向을 選擇하는 등의 高度의 知的 活動이 요청된다.

意思決定은 구체적인 活動要素의 한 測面을 나타낸다.<sup>23)</sup> 그러므로 意思決定은 人的 勞力과 다른 사람의 活動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遂行者에게 받아들여지고 理解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므로決定過程에서 계속적인 意思疏通이 필요하다. 이것은 人間管理의 重要性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서, 現代에 와서 家族 內外의 人間管理는 管理水準 向上에 더욱 강력한 手段으로 등장하고 있다. 人間管理의 目的是 管理를 目的化하는 위험에서 벗어나 計劃과 遂行者를 有機的으로 연결·組織하므로써 計劃을 보다 實踐 可能한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런데 家族의 目標는 家族, 個人的 發達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人間管理의 方向에 있어서 情意的 解決보다는 認知的 解決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家庭管理의 意思決定에 있어서는 合理性의 추구가 요청되며, 이는 意思決定者 自身이 合理的 行動素因을 가지고 있는가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Garfinkel은 合理的 行動이란 다음과 같은 14항목 素因을 보고 判斷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4)</sup> 1. 範疇設定 및 比較 2. 許容

22) M. H. Eigsti, "Interrelationships of Value Orientation, Decision-Making Mode and Decision-Implementing style of selected Low Socio-Economic Status Negro Homemaker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t. of Family Ecology, Michigan State Univ., 1973, Microfilm Xerography No. 7.

23) I. H. Gross, E. W. Crandall and M. M. Knoll, op. cit., p. 209.

24) H. Garfinkel, "The properties of Scientific and Common Sense Activities," *Management: A Decision Making Approach*, ed. Stanley Young (Belmont: Dickenson Publishing Co., Inc., 1969), pp. 107-111.

誤差 3. 手段의 摸索 4. 兩者擇一과 그 結果의 分析 5. 戰略 6. 時間調節에 대한 關心 7. 論言力 8. 進行의 指導 9. 選擇 10. 選擇의 根據 11. 目的과 手段의 關係의 適合性 12. 意味의 分明 및 우수성 13. 目的의 分明 및 우수성 14. 科學的 知識과 狀況判斷의 適合性 等. 以上에서 열거한 合理的 行動指針은 高度의 認知能力을 要하는 것으로서, 家庭管理의 全過程에 걸쳐서 主導的 역할을 하는 家庭管理者에게서 특히 啓發되어야 할 行動의 知的 側面이라 할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家庭管理의 意思決定은 價值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家族의 궁극적 목표인 家族構成員의 發達을 위해서는 課業뿐 아니라 人間管理에도 유의하면서 意思決定의 時制的・構造的 波及效果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情報蒐集을 통해 合理的 意思決定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意思決定者自身이 合理的 行動素因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 러한 諸過程은 思考, 法意力, 計劃, 技術의 使用 等의 高度의 知的 能力を 요구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管理의 認知的 領域인 것이다.

過程(process)이란 生產을 위한 一種의 操作體系이며, 目的한 結果를 얻기 위한 一連의 活動 혹은 機能으로 구성된다. Nickell 等은, 管理過程(management process)은 管理의 機能, 혹은 小體系(subsystem)라 불리우는 4段階, 즉 目的達成을 위한 計劃(planning), 實行을 위한 組織(organizing), 計劃의 遂行(implementing), 追求目標의 判定에서 結果를 評價(evaluating)하는 等의 進行性의 獨自의인 管理活動으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sup>25)</sup> Hicks와 Gullett은, 管理者는 管理機能을 創意—計劃—組織—動機化—意思疏通—統制하는 順序로 進行한다고 하였다. 이 러한 過程은 組織(organization)의 特性이 여하하든 적용되는 것이며, 이 모든 過程은 어느 것 이 더 重要하다고 할 수 없고, 각 過程마다 그 内部에서 6過程이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sup>26)</sup>

Gross 等은 目標設定後 管理過程이 進行되는 것으로 보던 종래의 개념을 부정하고, 家族의 管理의 行動에 있어서 目標設定은 하나의 構成過程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管理의 시작은 目標設定부터라고 보았다. 그 다음은 計劃過程으로서 管理行動에 있어서 計劃이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나 管理全體와 同一하게 과학적・만큼 支配的인 過程으로 여겼던 종래의 判定을 시정하였다.<sup>27)</sup> 그 다음은 目標와 計劃의 遂行過程으로서 이는 組織과 統制過程을 포함한다. Gross 等은 또한, 家族에 의한 管理의 全體 過程에 관련된 결정적인 것으로 휘드・백(feed back)概念을 適用하였다. 이 휘드・백 過程은 適應行動의 段階를 계획할 때 意思決定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sup>28)</sup> 실제로 過去의 遂行에서 얻은 知識에 근거를 둔 行動은 管

25) P. Nickell, A. S. Rice and S. P. Tucker, op. cit., pp. 37-38.

26) H. G. Hicks, C. R. Gullet,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 3rd e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76), pp. 189-190.

27) I. H. Gross, E. W. Crandall and M. M. Knoll, op. cit., p. 293.

28) A. Kuhn, *The study of Society : A Unified Approach*(Homewood, Ill. : Richard D. Irwin, 1963), ch. 14. quoted in Ibid., p. 258.

理過程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성질이 간과되어 왔다. 이 휘드·백過程은 특정 目標의 達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改善하거나 變化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家庭管理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概念으로 도입되고 있다.

以上의 考察에 의하면, 管理過程(management process)은 目標의 設定으로부터 시작하여 計劃, 組織, 遂行, 評價의 過程을 거치면서 각 過程에서 이 전체 과정이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全 過程에 걸쳐 意思決定과 情報의 휘드·백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것은 目標에 따라 短期的 혹은 長期의 週期를 갖는 것으로서, 目標의 設定부터 達成에 이르기 까지 一貫性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概念形成부터 分明해야 하고, 資料의 解析, 推論, 原理와 實事의 適用에 이르기까지 高度의 思考水準을 要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家族資源의 利用, 意思決定, 管理過程은 高度의 知的 能力を 要求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領域이야 말로 家庭管理에서 啓發되어야 할 認知的 側面이다.

## ■

人間의 行動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動機化되는데 대부분의 成人 行動의 動機化는 學習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動機화와 學習은 共同으로 遂行을決定한다.<sup>29)</sup> 이러한 動機와 學習과 遂行의 相互關係에서 더욱 중요한 價値를 갖는 것은 管理의 認知的 領域이다. 이는一般的 資質로서의 認知的 能力보다는 具體的 管理 知識을 알고, 動機化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遂行할 때 그 效果가 더욱 높을 것임을 의미한다.

本 調査는 前節에서 確認한 管理의 認知的 領域의 重要性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受容 實態로부터 管理의 學習可能性을 파악하고, 그 結果로부터 學習과 관연하여 家庭管理에 있어서 認知的 能力의 啓發을 위한 具體的 提案點을 發見해 내고자 계획된 것이다.<sup>30)</sup>

調査對象으로는 家政學 專攻者 30名(濟州大學 家政教育科 學生-A集團)과 他學 專攻者 30名(濟州大學 他學科 女學生-B集團)을 選定하였다. 選定 理由는, 두 集團에 있어서 '家政'이라는 單位 現象에 대한 思考水準이 다를 것이라는 假定을 할 수 있고, 따라서 획득된 知識이나 認知的 領域의 方向性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豫想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調査道具는 Nickell과 Dorsey의 管理能力의 自己評價道具<sup>31)</sup>를 근거로 해서, 意思決定, 計劃, 組織, 遂行, 評價過程에서 구체적, 포괄적으로 발생되는 認知活動을 몇 가지 範疇(意思決定-4問項, 計劃-6問項, 組織-4問項, 遂行-11問項, 評價-5問項)로 概念化하여 만든 質問紙 形態의 測定道

29) S. H. Hulse, J. E. Deese and H. E. Egeth, *The Psychology of Learning*, 4th ed., 李寬第譯(서울: 法文社, 1977) pp. 175-183.

30) 調査期間은 1977년 6월

31) P. Nickell, J. M. Dorsey, op. cit., pp. 109-112.

具를 사용하였다. 被調查者は 管理能力이 記述된 各問項마다 自己能力을 評價하여 低水準(Low), 平均水準(Average), 高水準(High)中의 하나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統計處理는 各 尺度點數를 低水準—1점, 平均水準—2점, 高水準—3점으로 換算하여 平均을 산출하였고, 두 集團의 平均差를 檢證하기 위해 t-test하였다. 調查內容에서 사용된 概念의 簡略化는 다음과 같다.

意思決定(decision making)過程은 管理의 全 過程에 걸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機能이므로 항상 충분한 注意力を 기울여 어떤 狀況에서나 個人과 家族의 問題를 發見해 내고 (問題의 發見) 各各의 遂行過程의 决定的 時期에 意思決定을 할 수 있어야 하며 (適時의 意思決定), 多樣한 情報蒐集을 通해 决定內容이나 그 結果에 대해 自信感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活用한다. (自信感 및 그의 利用). 家族, 個人, 社會의 價值와 目標에 합치되면서 合理的인 근거를 가지고 意思決定을 할 수 있어야 한다(合理的 意思決定).

計劃(planning)過程에서는 個人과 家族의 問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서 (問題의 受容), 그로부터 目標를 設定하고 그 達成을 위해 可能한 方法을 構想하고 (計劃의 構想), 計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그 計劃이 達成되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結果를 豫想할 수 있어야 한다(結果의 豫想). 計劃과 그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結果의 多角的인 分析을 通해서 目標 達成을 위해 가장 타당한 手段과 方法을 발견해 내고 (解解決策의 摸索), 計劃을 目的으로 끝내지 않고 手段으로 충분히 이용하여 소정의 목표 달성을 이루어야 하고 (實行可能한 計劃의 樹立), 그러기 위해서는 充分한 情報蒐集을 通해 資料를 分析,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情報蒐集).

組織(organizing)은 人間, 作業, 資源사이에 적당한 關係를 수립하여 活動을 細分하거나 統合하여 個人에게 權威와 責任을 配分하는 過程이다.<sup>32)</sup> 이러한 過程에서 계획을 効率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資源, 作業, 人間 間의 組織이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로부터 이 세 要素들을 십분 利用하는 가장 効果的인 方法으로 잘 組織할 수 있어야 하며 (組織의 必要性 認識, 일의 協同 및 分担에 관한 組織, 資源의 組織), 遂行者の 决定에 있어서 평결을 갖지 않도록 좋은 相互關係를 유지하고 (원만한 人間關係維持), 家族員과의 충분한 意思疏通을 통해 일의 結果도 좋게 하면서 家族員의 經驗과 發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方向으로 組織할 수 있어야 한다.

遂行(implementing)은 計劃과 그의 組織 内容을 實行하는 過程이며, 統制를 通해 目標達成을 할 수 있도록 指導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일의 結果뿐 아니라 家族의 滿足感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過程에서는 家族資源이 구체적으로 使用되므로 언제나 資源의 限界性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며 (資源의 限界性 把握), 有事時 資源을 代替할 수 있어야 한다(資源의 代替能力). 計劃이 소정의 方向으로 進行될 수 있도록 統制할 수 있어야 하며 (計劃의 統制), 평상

32) Ibid., p. 88.

## 10. 논문집

시에나 긴박할 때나 간결하고 유쾌한 태도로 명확하게 方向提示할 수 있어야 하고 (方向提示能力), 目標達成을 위해 家族員을 統率할 수 있어야 한다(統率力). 人間의 價值를 認識하고 個別能力을 受容하여 지나치게 課業中心的이 되어 家族의 幸福과 일의 目標 사이의 關係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人間의 價值認識 및 個別能力의 受容). 個人的 責任, 家族의 責任의 關係를 總體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責任의 總體的 認識), 人間管理面에서 構成員과의 相互關係를 잘 유지하고 家族員으로부터 分離되는 일이 없이 잘 協同한다(構成員과의 協同). 소정의 결과를 얻기 위해 計劃을 利用할 수 있고, 계속적인 推進을 할 수 있어야 하며 (計劃의 推進), 狀況에 따라 응통성 있게 계획을 調整할 수 있어야 한다(計劃의 調整). 計劃은 어디까지나 目標達成을 위한 手段이라는 것을 알고 遂行過程에서 計劃을 有用하게 사용해야 한다(手段으로서의 計劃의 價值認識).

評價(evaluation)는 結果의 評價뿐 아니라 管理의 全過程을 通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휘드·백效果를 지니게 된다. 또한, 일의 結果와 더불어 家族構成員의 滿足度, 家族의 發達, 資源의 利用, 周邊環境에 미친 영향面에서 價值있는 것이 있는가를 基準으로 評價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評價의 價值를 알고 分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評價의 價值認識), 그 分析은 客觀的 基準에서 行해져야 하며 (客觀的 分析力), 자기 自身에 대해서도 적당히合理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명확하고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어야 한다(客觀的 自己評價). 일단 分析된 것은 方法이나 行動을 變化시키는 方向으로 적절히 適用할 수 있어야 하며 (評價 結果의 適用), 더 나아가서 한 經驗에서 얻은 知識을 다른 狀況에서도 잘 應用할 수 있어야 한다(評價 結果의 應用).

調查資料의 分析 結果中 그 傾向性이 뚜렷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適時의 意思決定( $p < .05$ ), 情報蒐集( $p < .01$ ), 統率力( $p < .001$ )은 他學 專攻者가 家政學專攻者보다 自己評價 點數 平均( $\bar{X}$ )이 높았으며, 이것은 각각의 有意水準에서 意義있는 差異였다.
2. 問題의 受容( $p < .05$ ), 計劃의 構想 ( $p < .05$ ), 方向提示能力( $p < .05$ ), 評價結果의 應用 ( $p < .05$ )은 家政學 專攻者가 他學 專攻者보다 自己評價點數 平均( $\bar{X}$ )이 높았으며, 이것은 각각의 有意水準에서 意義있는 差異였다.
3. 自信感 및 그의 利用, 組織의 必要性 認識, 원만한 人間關係 維持, 資源의 代替ability, 人間의 價值認識 및 個別能力의 受容, 評價結果의 適用은 集團間에 平均差가 없었다.
4. 意思決定, 計劃, 組織, 遂行, 評價의 全項目(30項目)中 p水準에서 볼 때 意義있는 差異는 아니었으나 17項目에서 家政學 專攻者の 平均이 他學專攻者 보다 높게 나타났고, 7項目에서는 他學專攻者가 더 높았다.
5. 두 集團에서 공통적으로 平均水準에 이르지 못한다고 自己評價한 項目은 實行可能한 計劃의 樹立, 資源의 代替ability이었다.

## 管理過程別 管理能力의 自己評價 結果分析

過程別	問項 番號	内 容	區 分	N	$\bar{X}$	SD	df	t
意 思 決 定	1	適時의 意思決定	A	30	1.8	0.52	58	2.15*
			B	30	2.1	0.54		
	2	自信感 및 그의 利用	A	30	2.0	0.68	58	0
			B	30	2.0	0.77		
計 劃	3	合理的 意思決定	A	30	2.3	0.73	58	0.57
			B	30	2.2	0.60		
	4	問題의 發見	A	30	2.2	0.65	58	1.12
			B	30	2.0	0.71		
組 織	5	問題의 受容	A	30	2.5	0.81	58	1.86*
			B	30	2.1	0.83		
	6	計劃의 構想	A	30	2.5	0.62	58	1.93**
			B	30	2.2	0.57		
策 劃	7	解決策의 摸索	A	30	2.0	0.73	58	1.04
			B	30	1.8	0.73		
	8	結果의 豫想	A	30	2.0	0.63	58	0.57
			B	30	1.9	0.70		
組 織	9	情報蒐集	A	30	2.0	0.68	58	2.46*
			B	30	2.4	6.55		
	10	實行可能한 計劃의 樹立	A	30	1.8	0.52	58	0.76
			B	30	1.9	0.47		
逐 遂	11	組織의 必要性 認識	A	30	2.4	0.61	58	0
			B	30	2.4	0.62		
	12	일의 協同 및 分担의 組織	A	30	2.4	0.66	58	1.64
			B	30	2.1	0.73		
行 動	13	資源의 組織	A	30	2.2	0.64	58	0.66
			B	30	2.3	0.51		
	14	원만한 人間關係 維持	A	30	2.2	0.54	58	0
			B	30	2.2	0.57		
評 價	15	資源의 限界性 握把握	A	30	2.3	0.63	58	1.30
			B	30	2.1	0.54		
	16	資源의 代替能力	A	30	1.9	0.63	58	0
			B	30	1.9	0.75		
評 價	17	計劃의 統制	A	30	2.2	0.64	58	0.54
			B	30	2.1	0.76		
	18	方向提示能力	A	30	2.2	0.60	58	1.87*
			B	30	1.9	0.62		
評 價	19	統率力	A	30	1.7	0.64	58	***
			B	30	2.3	0.55		
	20	人間의 價値認識 및 個別能力의 受容	A	30	2.4	0.56	58	0
			B	30	2.4	0.84		
評 價	21	責任의 總體的 認識	A	30	2.4	0.71	58	1.06
			B	30	2.2	0.73		
	22	構成員との 協同	A	30	2.4	0.66	58	1.49
			B	30	2.1	0.85		
評 價	23	計劃의 推進	A	30	1.9	0.77	58	0.96
			B	30	2.1	0.81		
	24	計劃의 調整	A	30	2.0	0.63	58	0.62
			B	30	2.1	0.60		
評 價	25	手段으로서의 計劃의 價値認識	A	30	2.3	0.59	58	1.08
			B	30	2.1	0.81		
	26	評價의 價値認識	A	30	2.4	0.62	58	0.60
			B	30	2.3	0.65		
評 價	27	客觀的 分析力	A	30	2.3	0.51	58	1.45
			B	30	2.1	0.54		
	28	客觀的 自己評價	A	30	2.0	0.63	58	0.57
			B	30	1.9	0.70		
評 價	29	評價結果의 應用	A	30	2.3	0.63	58	0
			B	30	2.3	0.53		
	30	評價結果의 應用	A	30	2.4	0.61	58	1.89*
			B	30	2.1	0.60		

Group A : 家政學專攻者  
Group B : 他學專攻者

\* P < .5

\*\* P < .01

\*\*\* P < .001

以上의 分析 結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解析과 提言을 할 수 있다.

1. 分析 結果 4에 의하면, 全 30項目中 17項目에서 家政學 專攻者의 平均點數가 比較集團보다 높게 나타났고, 7項目에서 他學 專攻者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家政學 專攻者가 管理의 認知的 領域에 좀더 익숙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약하나마 家庭管理의 認知的 領域의一般的學習 可能性을 示唆해 주고 있다.

2. 分析 結果 3에 의하면, 人間, 資源, 組織에 관한 概念形成, 自信感, 人間關係維持, 一般水準의 휘드·백에 있어서는 集團 間에 차이가 없었다. 以上의 項目은 學習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 管理에 있어서 보다一般的인 認知的 領域水準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分析 結果 1.2에 의하면, 他學 專攻者는 個人的 特性 (personal traits)에 관계되는 面一適時에 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 決斷性, 可能한 情報를 實제로 菲集할 수 있는 積極性, 일의 進行과 人間關係의 秩序를 維持할 수 있는 統率性 等에 있어서 家政學 專攻者와 意義있는 差異를 보였다. 그러므로, 學習과 動機와 遂行의 觀點에서 볼 때, 實行 以前의 知的 活動보다는 實제 實行에 있어서 個人的 特성이 作用할 수 있는 面에 그 能力이 높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家政學 專攻者는, 問題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計劃을 構想하며, 어떤 狀況에서나 方向提示를 할 수 있고, 評價 結果를 다른 경우에 應用하는 高水準의 휘드·백을 할 수 있다고自己評價하였는데 他學 專攻者와의 平均差는 意義있는 것이었다. 이는, 家政學 專攻者가 家庭管理의 知識과 動機에 좀더 익숙함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서, 個個人的 特성이 作用하는 實제 實行面보다는 實行 以前의 知的 活動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他學 專攻者에게는 管理知識의 習得 및 管理의 動機化를, 家政學 專攻者에게는 個個人的 特성을 強化한다면 上昇的인 効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그에 대한 배려를 提言해 볼 수 있다.

4. 分析 結果 5에 의하면, 두 집단 모두에 強化해야 할 管理의 認知的 能力은 實行可能한 計劃의 樹立과 資源의 代替能力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 遂行能力 水準에는 知識과 個個人的 特성이 作用하므로, 두 집단에 각각 管理知識의 習得 및 動機化, 個個人的 特性的 啓發을 위한 強化的 배려가 필요하다.

Spurrier는 管理原理에 대한 知識과 個性사이의 關係에 대한 研究에서, 家庭管理에 대한 知識이 家庭管理滿足에 대한 가장 좋은 예언자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up>33)</sup> 이는 일의 結果로 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知的 要求水準이 낮건 높건 간에 그 일을 좋아하는 가장 큰 理由였다는

33) P. J. Spurrier,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as Related to Knowledge of Management Principles and Certain Personal Traits of a Selected Group of Homemakers," Texas Womans' Univ., Doctoral,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 1973, Vol. 1, p. 13.

Steidl의 研究<sup>34)</sup>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管理原理에 대한 學習一知識의 習得一일의 結果로부터 얻는 기쁨—管理의 動機化—家庭管理 滿足度라는 계속적인 波及 效果를 意味하는 것이다. 한편, Spurrier는 家庭管理 滿足과 자기 確信, 錯誤, 抑制된, 實驗的, 冒險的, 느슨한, 想像的, 感覺的, 聰明한, 安定 等의 個個人的 特性과는 意味가 重複되어 있으며, 個個人의 빈틈 없는 特性은 가장 만족하는 集團의 滿足度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므로, 調查對象이 된 두 集團의 家庭管理에 있어서 認知的 領域의 啓發을 위해서는 認知的 領域의 두 側面—一個人的 特性과 管理知識의 習得 및 動機化—에 대한 补完의인 배려가 필요함을 提言할 수 있다. 이는 필시 그들이 속해있고 장차 속하게 될 家政現象의 理解 및 整體的把握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家庭管理 滿足度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家族의 幸福 및 發達을 위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管理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豫想할 수 있다.

## IV

本研究는, 家庭管理의 重要한 狀況—家族資源의 利用, 意思決定, 管理過程—과 관련하여, 그의 概念的, 構造的 特性으로 부터, 家庭管理의 質的인 違行에 있어서 注意力, 思考, 判斷, 技術의 使用을 요구하는 認知的 領域이 技能的 側面보다 더 중요한 役割을 함을 明白히 하고자 하였다.

그 重要性으로부터 誘導되어, 家庭管理 違行에서 나타날 수 있는 管理의 認知的 能力의 自己評價道具를 두 集團 (家政學 專攻者와 他學 專攻者)을 대상으로 調査 實施하였다. 그 分析結果로부터, 管理能力에 있어서 認知的 領域의 啓發을 위해서는 個性과 管理知識의 方面에서 각各 补完의인 배려를 해야 함을 提言하였다.

以上의 研究結果는 研究過程上 앞으로 补完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몇가지 制限點을 지니고 있다.

1. 認知的 領域을 技能的인 것과 區分하여 그 重要性을 確認하기 위한 概念的 分類만 시도하였다.
2. 調査內容의 構成에서 管理過程上의 認知的 領域의 簡略化만 시도하였다.
3. 管理의 認知的 領域은 다양한 經路를 통해 形成·啓發될 수 있는 것—一個人의 基本的 資質, 現場學習, 間接經驗에 의한 模倣과 洞察, 學校教育—임에도 불구하고, 被 調査者의 認知的能力의 習得經路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4. 調査結果는 被 調査者의 主觀的 觀點에서 본 自己能力 評價에 의한 것이므로 結果의 信頼度에 論議가 있을 수 있다.

34) R. E. Steidl, op. cit., p. 121.

35) P. J. Spurrier., op. cit., p. 13.

5. 縱斷的 研究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管理學習과 行為的學會에 依하였다.

그러므로, 家庭管理의 認知的 領域 啓發을 위해 좀더 進展된 結果를 얻기 위해서는, 研究方法 및 內容에 있어서 다음 몇가지 事項의 補完 乃지 測定道具의 開發이 必要하다.

1. 認知水準 尺度에 의한 能力의 分類
2. 範疇內의 測定項目 補完.
3. 能力習得 經路 区分
4. 認知能力의 客觀的 評價道具에 의한 評價分析
5. 縱斷的 研究에 의한 管理學習과 動機와 進行能力의 相關關係 分析
6. 標集의 範圍 擴大

以上에서 提示된 項目的 補完에 의한 계속적인 研究를 家庭管理의 認知的 領域 啓發을 위한 앞으로의 研究問題로서 提案하고자 한다.

—Summary—

## On Developing the Cognitive Domain in Home Management

*Hong Hyung-ock*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emphasize definite cognitive domain in relation to managerial situation—utilizing family resources,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process—and to show that cognitive domain (high cognitive) plays a more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nd cultivating the managerial ability than technical domain (low cognitive).

From the above conceptual framework,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used. The sample consists of 60 female students in Jeju National University. Half of them (Group A) major in Home Economics, while the other half (Group B) do not. Each student was asked to answer thirty questions—four on decision-making, six on planning, four on organization, eleven on implementation and five on evaluation—through self-evaluation in three degrees, i.e., low (one point), average (two) and high (three). To verify differences in attitudes of the two groups t-test method was adopted.

The results acquired are as follows.

1. Group B have considered themselves more competent in ability to make timely decision ( $p < .05$ ) and to collect information ( $p < .01$ ) and leadership ( $p < .001$ ) than Group A in each level of significance.

2. Group A have considered themselves more competent in ability to accept problems ( $p < .05$ ), to visualize a plan ( $p < .05$ ), to give directions ( $p < .05$ ) and to apply the pre-evaluated results ( $p < .05$ ).

3. Both groups have regarded their ability to make well conceived and complete plans and to devise alternative use of available resources beyond average.

4. Means of scores on 17 out of 30 items was higher in Group A than in Group B. No difference was revealed in six items.

The above results show that Group A are more familiar with cognitive domain, thus are expected to have the potential to meet with problems with creativity in homemaking but lack implementing ability, while Group B, unaware of the principle of home

management, are decisive and capabl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but prone to feel bored in home affairs.

An implication follows from the above. Cultivation of personal traits such as decisiveness, positivity and leadership is recommended for Group A to further develop managerial ability, while for Group B introduction and motivation to the managerial knowledge and, in particular, cognitive domain in home management is expected to produce a better life than otherwise.